

강진군 “청년의 힘이 강진발전의 원동력”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 정기총회 개최

농업·축산·경제 등 3개 분과 42명 구성

강진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협의체인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가 정기총회를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정기총회는 지난 6일 저녁 이태훈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 대표와 이승욱 강진군수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읍 다산청렴수련원 다산교육관에서 열렸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통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젊은 기운이 물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과 제도 사이의 차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언제나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의견을 주면 이해를 돕고 절차를 알려주는 등 최대한의 편의제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농업과 축산·수산·임업, 경제 등 3개 분과 42명으로 구성된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45세 이하 청년들로 연2회의 정기총회와 분기별 1회씩 분과별 회의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과별 회의를 거친 의견들을 쏟아냈는데 군수와 참석한 5개 부서장들의 진지한 답변과 함께 보조사업 정책 등 다양한 추가 의견교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각종 사업비의 형평성 있는 지원대책과 함께 농촌활성화방안으로 농촌체험프로그램 공모를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일자리, 인재양성, 청년복지, 청년문화 등 4대 분야로 마련된 제1차



지난 6일 전남 강진읍 강진읍 다산청렴수련원 다산교육관에서 이승욱 강진군수와 강진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강진군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의체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2 강진산단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강진형 청년일자리 창출에 2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관심과 홍보를 주문했다.

한편 강진군은 강진군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사회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형성을 통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강진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군, 대규모 사업 지역발전 앞당긴다

국립난대수목원·전남체육대회 유치·해양치유센터 건립 착공

완도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종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현안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 국비 1,872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 유치에 이어 지난 3월 31일 열린 전남도 체육회 이사회에서 2023년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2024년에는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추전과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도 개최됨에 따라 2년 간 선수, 응원단, 방문객 등 약 3만여 명이 이상이 완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2022완도국제해조류 박람회 개최로 대규모 행사가 연속 개최되어 지역 경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98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해양치유산업 추진이 순항인 가운데 지난달 31일에는 2021년을 해양치유산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해양치유센터가 착공

을 했다. 해양치유산업은 해양바이오산업,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더불어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원의 소득 창출로 지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 대응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립난대수목원, 침수예방 사업, 어촌 뉴딜300 사업, 도시재생 뉴딜, 농촌 신활력 플러스, 가고 싶은 섬 가꾸기(금당도) 등 총 33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총 2,90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이외에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준공, ▲친환경 수산물 국제인증(ASC, MSC) 세계 최다 획득, ▲여름휴가 여행 종합 만족도 1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수욕장에만 부여되는 국제 인증 ‘블루플래그’ 재인증 등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었다.

완도=이민혁 기자

“올 봄 나들이는 잠시 멈춰주세요”

해남군, 특별방역대책 운영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명현관 군수)는 봄철 나들이 기간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데 따라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39일간 관광지, 사찰,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한다.

코로나19가 1년 이상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이 누적되어 봄맞이 야외활동 등 이동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연달아 이어지는 기간동안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체·장거리 여행 자제 및 다중밀집지역 피하기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군은 관내 전 시설별, 업종별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민관협력 방역수칙 지도와 함께 특별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동취재본부

‘알 짝차고 맛이 일품’ 진도 봄꽃게로 ‘서망항 북적북적’

매일 13~15t 위판...적조 없는 바다에서 통발로 잡아 올려 전국에서 인기 쇄도



전국 꽃게 생산량의 40%를 차지하는 진도 해역이 ‘물 반 꽃게 반’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해보다 한달 빠른 조업 시기인데도 진도 서망항은 갯 잡아 올린 봄 꽃게로 풍어를 이루고 있다.

8일 꽃게잡이 어민들에 따르면 진도군 조도면 외병·내병도 일원에서 끌어올리는 꽃게 통발마다 제철을 만난 꽃게로 가득하다.

조도면 해역에는 매일 40~50여 척의 꽃게잡이 어선이 출어, 적당 300~350kg의 꽃게를 잡아 올리고 있다. 1일 위판량은 13~15t을 기록

하고 있다. 지난 3월 초순부터 진도군수협을 통해 위판된 꽃게가 이날 현재까지 118t, 위판고는 35억원이다.

이는 같은 시기 기준으로 ▲40t, 15억원(2020년) ▲26t, 10억원(2019년) ▲33t, 9억원(2018년)에 비해 4~5배 이상 많은 어획고를 달성하고 있다.

올해는 바다 평균 기온이 12~13도로 따뜻하고 조도면 해역에 냉수대가 형성돼 플랑크톤 등 먹이가 풍부하면서 모래층이 알맞게 형성되면서 꽃게 서식 환경이 자연스럽

게 빨리 조성됐다. 특히 연중 적조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해역인 진도는 지난 2004년부터 바다 모래채취 금지와 함께 매년 1억원 이상 꽃게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꽃게 최적의 서식 여건이 됐다.

통발로 잡아 올려 다른 지역 꽃게보다 상품성이 좋아 구입을 위한 관광객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8일 현재 진도군수협 경매 위판 가격은 kg당 38,000원~48,000원이다.

김영서 선장(진도 꽃게 통발협회)은 “봄 꽃게 조업 시기가 지난해보다 한달가량 빠른데도 워낙 많이 잡히기 때문에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지금 진도 앞바다는 알이 짝 찬 봄 꽃게가 풍어를 이루면서 만산을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활짝 웃었다.

제철을 맞아 알이 짝차 올라 미식가들의 식욕을 한껏 자극하는 진도 꽃게는 꽃게젓, 탕, 무침, 간장게장 등으로 인기가 전국적으로 높아 대형마트, 수산시장 등에 공급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장흥군, 바이오 헬스 산업 세계시장 진출

지역 거점 스마트특성화사업 공모사업 국비 50억·지방비 40억 선정

장흥군은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지역 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에 응모하여 ‘바이오메디컬 R&D 기반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이 지난 5일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비 50억 원과 지방비 40억 원 등 90억 원을 들여 지역 거점 바이오메디컬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R&D 고도화 사업을 관내 연구기관 (재)천연자원연구센터를 주축으로 4개 기관이 추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바이오산업이 급성장하는 반면, 자체 연구 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열악한 산업 현장을 감안하여 도입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성 제품의 해외 진출 실증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이 사업은 현재 지역 농가가 수익성이 높은 식·의약 제품 천연 원재료인 차즈기, 말골 등을 기업과 계약 재배하여 전량 수매로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데, 앞으로 재배 품목 확대

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 각 수행기관별로 천연자원 연구센터는 비임상 기능성 효력 시험과

천연물 식·의약품 GMP 생산을 지원하며, 순천대는 소재 표준화를 지원한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코스메디컬 소재 생산을, KTR은 비임상 시험 인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 바이오 기업은 총 60건의 고도화된 R&D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군은 2018년부터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단계적으로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등에 전라남도도와 협력하여 하드웨어 분야인 생물·의약산업벨트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반면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역 중소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생물·의약 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